

# 디자인 · 미학 및 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본 국내 남성 패션 연구동향

신 명 진\* · 남 윤 숙<sup>+</sup>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교수<sup>+</sup>

## Analysis of Articles on Design · Aesthetics and Beauty Aspects in Domestic Men's Fashion

Myung-Jin Shin\* · Yoon-Sook Nam<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illa University\*

Professor,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0. 9. 15, 심사(수정)일: 2011. 1. 5, 게재확정일: 2011. 1. 3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rend of articles on men's fashion in Korea as seen through clothing-related academic journals from 1990 to 2009. For a total of 478 research papers on men's fashion published in 18 clothing-specialized learned society journals, which are KCI-cited journals or candidates there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papers on men's fashion from 1990 to 2009, that of the 2000s rapidly increased to 5.2 times that of the 1990s. Second, The number of each area reserch was ranked aw follows: social psychology · marketing 34.1%(163), clothing construction 32.2%(154), design · aesthetics 19.7%(94), beauty 7.7%(37), history of clothing 4.8%(23), textile science 1.5%(7.7). Third, Studies on the aesthetics in men's fashion showed a steady increase from 1995, resulting in the number of papers in the 2000s being 12 times that of the 1990s. And, in the 2000s, the subjects explored in the 1990s, such as feminization of men's clothes, gender images, men's suit, etc. were deepened and expanded.

Key words: aesthetics(미학), beauty(뷰티), design(디자인), men(남성), men's fashion(남성 패션)

## I. 서론

의류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학문이며 응용학문이다. 학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론적 근거와 함께 창의성과 시의성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응용학문의 경우 시의성은 더욱 중요시 된다.<sup>1)</sup> 연구 논문의 주제는 시류를 반영하여 당시의 시각으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여 학문의 축적에 기여한다. 따라서 연구동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변화, 발전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어왔으며, 좀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늠케 하는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복식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으로 구분되어 발달하면서 각각의 성개념으로 정착되어왔다. 이후 복식은 착용자들이 시대에 따른 성개념의 기준을 수용과 거부를 넘나들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이라 하면 주로 여성의 전유물이라 생각되어 왔기에 이 같은 발전 모습은 의류학 연구에도 반영되어 연구의 주제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존의 논문들은 여성 패션 위주의 연구이거나 많은 분야에서 여성에 편중된 시각으로 접근된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남성들이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 패션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의류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의류학 전체 현황을 분석한 정찬진 외<sup>2)</sup>, 김정호<sup>3)</sup>, 나수임 외<sup>4)</sup>, 성화경 외<sup>5)</sup>와 이미숙<sup>6)</sup>이 있고, 분야별로는 한국복식의 연구동향을 살핀 김미자<sup>7)</sup>, 복식사회심리 분야의 이영혜 외<sup>8)</sup>, 패션마케팅 분야의 유혜경 외<sup>9)</sup>, 이유리 외<sup>10)</sup>, 의복구성 분야의 이정순 외<sup>11)</sup>, 정화연<sup>12)</sup>,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김미현<sup>13)</sup> 등의 연구가 있었다.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에는 은숙 외<sup>14)</sup>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의류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분야별, 학회지별로 이루어진 연구로 남성 패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현황이나 동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패션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과 동시에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의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 남성 패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는 관련성이 타 분야들보다 높고, 두 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하기에는 최근 뷰티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본 국내 남성 패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및 범위

국내 남성복 관련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KCI 등재, 등재후보 학회지에 게재된 남성 패션 관련 논문 총 47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논문의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의류관련 전문학술지의 검색을 통해 총 18개의 학회를 선정한 후 이루어졌다. <표 1>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식 분야는 제외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이 주제어나 키워드 검색<sup>15)</sup>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남성 패션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논문 분석 시 한 논문에서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중점이 된 분야로 포함시켰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회별로 수집된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수집된 논문을 연구자들이 사전조사와 토의를 통해 정찬진 외<sup>2)</sup> 등의 연구를 기본으로 의류관련학회의 분과 분류를 참고하여 디자인·미학, 뷰티, 의복구성, 사회심리·마케팅, 복식사, 피복과학의 6분야로 구분

한 후 각 분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남성복 관련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도에 따른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남성 패션의 연도별 연구경향

남성 패션의 연도별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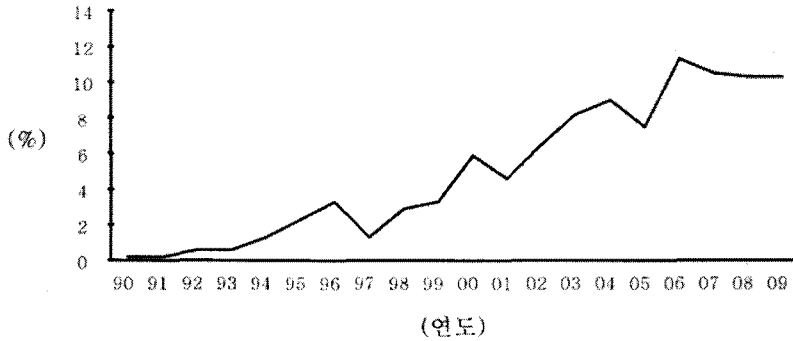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총 478편의 남성 패션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 패션에 관련된 연구논문은 2000년 이후에 월등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16.1%(77편),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83.9%(401편)로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의 논문수가 약 5.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변화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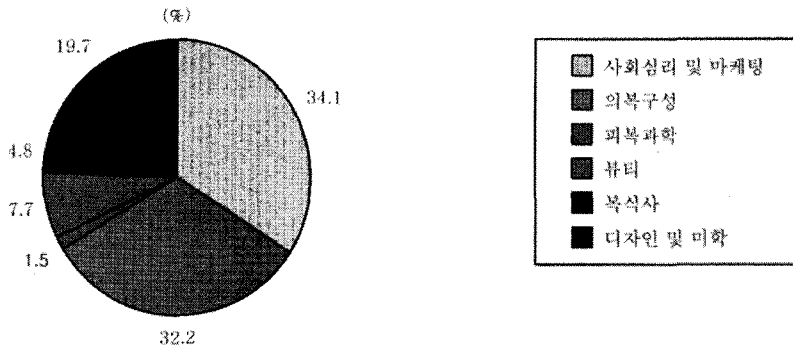
<표 1> 학회별 연구동향 논문수

학회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0.2)	(0.2)	(0.2)	(0.2)	(1.3)	(1.7)	(1.5)	(0.4)	(1.3)	(1.0)	(1.0)	(0.8)	(1.9)	(2.3)	(2.5)	(2.1)	(2.7)	(2.3)	(1.7)	(1.9)	(1.3)	(26.8)
1	한국 의류학회	1	1	1		6	8	7	2	6	5	5	4	9	11	12	10	13	11	8	9	129	
2	복식 문화학회				★1			3	1	4	5	11	4	4	6	7	3	6	1	5	6	67	
3	한국 복식학회							6	3	3	3	5	6	2	3	8	3	5	4	2	5	58	
4	한국패션 비즈니스학회										★		6	3	3	2	4	3	9	10	2	3	45
5	한국의류 산업학회										★2		2	5	4	5	2	4	4	5	8	41	
6	대한 가정학회			2	2		3			1		1		5	2	2	4	4		4		30	
7	한국 생활과학회			★									1		3	2	4	2	2	4	7	25	
8	한국패션 디자인학회												★	1	3	1			4	2	2	13	
9	한국 미용학회						★											2	3	6	2	13	
10	한국의상 디자인학회										★1			1				2	5	1	3	13	
11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					1		3	1		4		9	
12	한국 감성과학회									★					1		1		1	3	1	7	
13	한국인체 예술학회											★		1	1			1		1	2	6	
14	한국 색채학회														1	1		1	2	1		6	
15	대한피부 미용학회														★	1		2	1		1	5	
16	한복 문화학회										★						1	2	2			5	
17	한국두피모발 미용학회																★2			1		3	
18	한국 디자인학회												2		1							3	
	계 (%)	1	1	3	3	6	11	16	6	14	16	28	22	31	39	43	36	54	50	49	49	478	
		(0.2)	(0.2)	(0.6)	(0.6)	(1.3)	(2.3)	(3.3)	(1.3)	(2.9)	(3.3)	(5.9)	(4.6)	(6.5)	(8.2)	(9.0)	(7.5)	(11.3)	(10.5)	(10.3)	(10.3)	(100)	

★: 창간년도, (%)



〈그림 1〉 연도별 남성 패션관련 논문비율(%)



〈그림 2〉 남성 패션의 분야별 논문 비율(%)

추세를 한눈에 알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모습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세기말 현상과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통해 다각적인 면에서 남성 패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동시에 학자들의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남성 패션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학회는 한국의류학회 26.8%(129편)였고, 복식문화학회 14.0%(67편), 한국복식학회가 12.1%(58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가 9.4%(45편) 한국의류산업학회 8.6%(41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패션에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는 의류학 관련 전문학회위주로 발표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미용학회나 색채학회 등과 같은 연계학회에서도 남성 패션에 관련된 논문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 남성 패션의 분야별 연구경향

1990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표된 남성 패션관련 논문 총 478편을 분야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심리·마케팅 34.1%(163편), 의복구성 32.2%(154편), 디자인·미학 19.7%(94편), 뷰티 7.7%(37편), 복식사 4.8%(23편), 피복과학 1.5%(7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는 전체의 27.4%를 차지하여 사회심리·마케팅 분야나 의복구성 분야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는 디자인 감각과 응용, 미의식을 다루는 분야로 연구의 체계화와 객관화가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표 2〉는 남성 패션의 연구 분야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는

<표 2> 남성 패션 관련 연구발표의 연도별 추이 논문수

(%)

분야	연도																				계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사회심리 · 마케팅	1 (0.2)	1 (0.2)	2 (0.4)	1 (0.2)	4 (0.8)	6 (1.3)	6 (1.3)	1 (0.2)	6 (1.3)	6 (1.3)	17 (3.4)	6 (1.3)	12 (2.5)	11 (2.3)	11 (2.3)	15 (3.1)	15 (3.1)	12 (2.5)	14 (2.9)	16 (3.3)	163 (34.1)
의복구성			1 (0.2)	1 (0.2)	2 (0.4)	4 (0.8)	6 (1.3)	2 (0.4)	2 (0.4)	4 (0.8)	3 (0.6)	8 (1.7)	12 (2.5)	11 (2.3)	19 (4.0)	13 (2.7)	15 (3.1)	18 (3.8)	16 (3.3)	17 (3.6)	154 (32.2)
디자인· 미학				1 (0.2)			2 (0.4)	3 (0.6)		2 (0.4)	4 (0.8)	6 (1.3)	6 (1.3)	16 (3.3)	9 (1.9)	6 (1.3)	13 (2.7)	9 (1.9)	9 (1.9)	8 (1.7)	94 (19.7)
뷰티												1 (0.2)	1 (0.2)	1 (0.2)	3 (0.6)	2 (0.4)	6 (1.3)	8 (1.7)	7 (1.5)	8 (1.7)	37 (7.7)
복식사						1 (0.2)	2 (0.4)		6 (1.3)	3 (0.6)	4 (0.8)					1 (0.2)	3 (0.6)	2 (0.4)	1 (0.2)		23 (4.8)
피복과학										1 (0.2)		1 (0.2)					2 (0.4)	1 (0.2)	2 (0.4)		7 (1.5)
계 (%)	1 (0.2)	1 (0.2)	3 (0.6)	3 (0.6)	6 (1.3)	11 (2.3)	16 (3.3)	6 (1.3)	14 (2.9)	16 (3.3)	28 (5.9)	22 (4.6)	31 (6.5)	39 (8.2)	43 (9.0)	36 (7.5)	54 (11.3)	50 (10.5)	49 (10.3)	49 (10.3)	478 (100)

<표 3>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의 연구주제관련 연도별 추이 논문수

(%)

분야	연구 주제	연도																				계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디자인 · 미학	미학							1 (0.8)	1 (0.8)		2 (1.5)	3 (2.3)	5 (3.8)	2 (1.5)	7 (5.3)	6 (4.6)	3 (2.3)	10 (7.6)	5 (3.8)	6 (4.6)	1 (0.8)	52 (39.7)
	디자인				1 (0.8)			1 (0.8)	2 (1.5)			1 (0.8)	1 (0.8)	4 (3.1)	9 (6.9)	3 (2.3)	3 (2.3)	3 (2.3)	4 (3.1)	3 (2.3)	7 (5.3)	42 (32.1)
뷰티	헤어												1 (0.8)		1 (0.8)	2 (1.5)	3 (2.3)	6 (4.6)	4 (3.1)	3 (2.3)		21 (16.0)
	피부· 메이크업													1 (0.8)		1 (0.8)	1 (0.8)	3 (2.3)	2 (1.5)	3 (2.3)	5 (3.8)	16 (12.2)
계 (%)					1 (0.8)			2 (1.5)	3 (2.3)		2 (1.5)	4 (3.1)	7 (5.3)	7 (5.3)	17 (13.0)	12 (9.2)	8 (6.1)	19 (14.5)	17 (13.0)	16 (12.2)	16 (12.2)	131 (100)

사회심리·마케팅 분야나 의복구성 분야에 비하여 조금 늦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복식사 분야를 제외한 그 이외의 분야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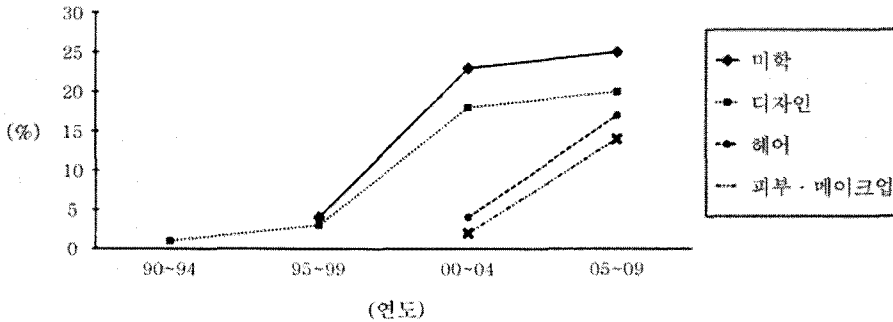
### 3.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의 연구경향

<표 2>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미학 분야와 뷰티 분야는 전체 478편의 남성 패션 연구논문

중에서 각각 19.7%(94편), 7.7%(37편)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 보았다.<표 3>

디자인·미학분야와 뷰티분야에서 전체적인 연구논문수의 변화를 보면 90년부터 94년까지 1편, 95년부터 99년까지 7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7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6편으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표 3>

남성 패션의 미학을 다룬 연구가 39.7%(52편)로 가장 많았고, 패션디자인 32.1%(42편), 헤어 16.0%



〈그림 3〉 디자인·미학 및 뷰티 분야의 연구논문 비율 변화(%)

(21편), 피부·메이크업 12.2%(1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패션의 미학을 다룬 연구는 95년부터 99년까지 4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3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편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면서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

특히 2000년 이후 연구논문의 수가 90년대에 비하여 12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는 남성 패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보통 사회문화적 현상이 연구로 반영되는 시점과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1990년 후반에 남성 패션은 기존의 흐름에 비해 특이한 변화가 많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내용을 보면, 90년대에는 신세대의 패션에 관한 내용과 남성복의 여성화, 성적 이미지 등을 다루면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90년대에 다루어졌던 주제들이 심화/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성복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었고, 메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얼 등과 같은 남성의 이미지에 관련된 연구, 성역할, 이상적 신체미 등과 같은 남성의 신체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는 19세기~20세기 전반기에 걸쳐 형성된 산업사회의 부르조아, 남성, 서양인이 권력주체인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사회의 권력주체가 하류계층이나 청소년, 여성, 제3세계의 인종으로 바뀌어지면서 남성의 이미지에도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직선적이며, 단순한 이미지와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을 나타내었던 전통적인

남성성이 여성적이며, 곡선적, 장식적 이미지 도입으로 해방성과 관능성, 다문화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으며<sup>16)</sup> 또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 패션 디자인을 주제로 한 연구도 90년부터 94년까지 1편, 95년부터 99년까지 3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8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편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90년대에는 주로 남성 정장, 넥타이의 디자인 요소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90년대보다 아이템과 대상이 확장되어 셔츠, 넥타이, 구두, 교복, 아동복 등의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성정장 뿐만 아니라 셔츠와 넥타이 간의 조화와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면서 남성의 패션에 대한 발전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 분야의 연구가 확장되었다. 또한, 2000년대 말에는 유틸리티스 환경에 따른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디자인이 연구되면서 신기술과 의복의 결합으로 학계와 산업간의 거리가 더욱 좁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의 헤어관련 연구는 2001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그림 3〉 남성의 헤어관련 연구는 의류학과 관련 전문학회에서도 나타나지만, 미용학회 등과 같은 연계학회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 뷰티 분야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헤어관련

주제로는 남성의 헤어스타일 연구와 내재적 의미, 헤어스타일 트렌드, 헤어스타일 이미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미학분야와 사회심리·마케팅 분야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성의 패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생기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조화를 이루어 남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성 패션과의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피부·메이크업 관련 연구를 보면 연구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의 이미지형성을 위한 메이크업이나 화장품 관련 내용, 피부 관리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남성에게 금기시되던 피부 관리, 메이크업이 연구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남성의 패션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남성의 신체가 패션 그 자체로서 표현수단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 남성의 외모 가꾸기 열풍과 함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바디 심지어 성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의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sup>17)</sup> 또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스타의 패션이 일반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패션화된 남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이러한 연구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남성 패션의 여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남성의 피부·메이크업관련 주제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에 패션과 연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된다.

####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의류관련 학술지를 통해 본 국내 남성 패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KCI 등재, 등재후보 의류전문학회지 18개에 게재된 총 478편의 남성 패션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학회별/연도별, 분야별/연도별로 남성 패션

관련 연구논문의 전체의 현황을 살핀 후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남성 패션관련 논문수는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약 5.2배의 증가를 보이면서 남성 패션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발표된 논문수는 한국의류학회, 복식문화학회, 복식학회, 한국 패션비즈니스학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 의류관련 전문 학회 뿐 만 아니라 미용학회, 색채학회 등 다른 연계학회에서도 남성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2. 남성 패션관련 연구경향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총 478편의 논문 중 사회심리·마케팅 34.1%(163편), 의복구성 32.2%(154편), 디자인·미학 19.7%(94편), 뷰티 7.7%(37편), 복식사 4.8%(23편), 피복과학 1.5%(7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식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남성 패션 관련 연구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디자인·미학 및 뷰티분야의 131편의 논문을 디자인, 미학, 헤어, 피부·메이크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 패션관련 논문 중 미학이 39.7%(52편)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2.1%(42편), 헤어 16.0%(21편), 피부·메이크업 관련 연구는 12.2%(16편)로 나타났다.

남성 패션에 있어 미학을 다룬 연구는 95년부터 꾸준한 증가를 보이면서, 2000년 이후의 논문수가 90년대의 12배에 달하는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 90년대에 다루어졌던 남성복의 여성화, 성적 이미지, 남성 수트 등 주제들이 심화/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남성 패션의 연구주제들은 1990년 후반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남성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남성 패션 디자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90년대는 4편, 2000년대는 38편으로 확연한 증가를 보이면서 90년대에는 주로 남성 정장, 넥타이의 디자인 요소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90년대보다 아이템과 대상이 확장되어 셔츠, 넥타이, 구두, 교복, 아동복 등의 디자인 관련 연구와 아이템 간의 코디

네이션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말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웨어러블 컴퓨터에 관한 신경향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성의 헤어와 피부·메이크업 관련 연구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과 미디어를 통한 스타들의 영향 등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의류관련학회 뿐만 아니라 미용학회 등의 연계학회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패션과 조화를 이루어 남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남성의 이미지나 남성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남성 패션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 패션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에 급격한 양적 팽창과 함께 연구의 다양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 패션관련 분야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남성 자신의 가치관이나 미적 기준 등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패션에 있어 기존의 여성에 편중된 연구들이 2000년대 들어 남성으로 많이 전환된 점은 전체 의류학 발전의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남성 패션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성 패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의류학 전 영역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이은영, 정인희 (2010). *의류학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p. 44.
- 2) 정찬진, 박선정, 황선진 (1990). 한국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pp. 28-37.
- 3) 김정호 (1999).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복식*, 46, pp. 133-142.
- 4)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2000).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 분석: 1991~1999. *복식문화연구*, 8(6), pp. 853-863.
- 5) 성화경, 이유희, 유혜경 (1994).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8(5), pp.28-37.
- 6) 이미숙 (2002). 한국복식학회지 [복식]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분석-창간호(1977)부터 51권 8호(2001)까지. *복식*, 52(4), pp. 97-109.
- 7) 김미자 (1990). 한국 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1958~1989). *복식*, 15, pp. 55-61.
- 8) 이영혜, 이인자 (1996). 복식사회 심리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I. *복식*, 30, pp. 19-40.
- 9) 유혜경, 이승희 (2004). 한국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경향과 시사점: 2000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8), pp. 1121-1131.
- 10)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 마케팅 분야의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pp. 123-139.
- 11)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2001).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9(2), pp. 175-187.
- 12) 정화연 (2009). 의복구성학의 연구경향 분석-2000~2008년까지 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7(5), pp. 834-848.
- 13) 김미현 (2009).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3(8), pp. 1337-1346.
- 14) 은숙, 박재욱 (2006).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분야에 관한 논문분석: 1990-2004. *한국의류학회지*, 30(3), pp. 369-377.
- 15) 각 학회의 학회지 논문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어,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남성, 남자, 남아, 남성복, 신사복, men, masculine, boy, suit이다.
- 16) 이민선 (2003).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1(2), p. 190.
- 17) 성형 미인, 여자만 아니다 (2000. 12. 21). *chosun.com* 매거진.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http://we ekly1.chosun.com>  
남성 외모가꾸기에 대한 조사 (2006. 1. 27). *EZ서베이*.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http://www.trendmonitor.co.kr>  
남성 메이크업은 서비스의 기본 (2008. 6. 24).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